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 복지 선진국 상회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 2020년 13.1%, 2030년 20.4%, 2060년 33.7% 예상

복지지출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204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모든 복지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7일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정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지출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40년 이후부터 모든 복지 선진국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 지출 수준을 추정할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020년 13.1%, 2030년 20.4%, 2050년 31.4%를 넘어 2060년에 33.7%에 달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2015년부터

2060년까지 복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2040년 이후에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후반에 영미형 국가를 초과해, 2030년 초반에는 OECD 평균, 2030년 중반에 일본, 2040년에는 북유럽 국가를 넘어섰다.

조경업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복지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복지재정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을 35%이상으로 인상해야 국가재무 적정수준을 유지하면

서 늘어난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국가들과의 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단계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2015년 현재 영미형 복지국가의 지출수준(18.9%)을 목표로 하고, 이후 2035년까지 일본의 지출수준(23.1%), 2060년에는 북유럽 국가 수준인 27.5%를 목표로 복지재정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목표대로라면 우리나라가 국가재무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거쳐 고복지 단계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을 것 이란 설명이다.

조 실장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현재 18.5% 수준인데, 복지 재정을 이처럼 통제한다면 2060년에

25% 내외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할 때 ▲재정지출축소 ▲세원확대 ▲세입구조조정 순으로 우선순위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선진국들이 현재 우리나라와 소득수준 등이 유사한 시점에 국민부담률보다 재정지출을 빠르게 늘려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들 국가를 반면교사 삼아 가장 우선적으로 세입확대보다 재정지출을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의 원칙에 따라 면세자 비을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및 텍스갭 축소 등을 통해 조세포착률을 높이는 데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텍스갭은 2011년을 기준으로 27조원에 달하는 등 세수의 누수방지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뉴스



'구구데이' 사랑의 닭고기 나눔행사

농협 임실군지부, 노인회에 삼계탕용 닭 120마리 전달

농협 임실군지부는 7일 구구데이(9월9일)를 앞두고 전북농협(본부장 김태호)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구구데이 사랑의 닭고기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협임실군지부 직원들은 (사)한국노인회 임실군지회(회장 이강년)를 방문하여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삼계탕용 닭 120마리를 전달하였다.

한국노인회 임실군지회 이강년 회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비롯한 소외계

층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며 이번이농협에서 받은 닭고기를 임실 관내 안로당을 비롯하여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 임실군지부 최완 지부장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와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사랑의 닭고기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며 구구데이의 의미를 생각하며 닭고기와 계란을 일상적으로 애용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 총 61조 1000억원 기록

국세청, 신고인원 1133명으로 작년보다 80명 증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과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1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0명(7.6%), 신고금액은 5조원(8.9%) 늘었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

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총 570명이 2433억 5000만원(12.8%), 5조1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1.3%, 금액은 6.3% 증가했다.

법인인 총 563개 법인이 9543억 5600만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은 4.1%, 금액은 9.2% 늘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89억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65억원이었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원 이하가 247명(43.3%), 법인은 50억원 초과가 302개(53.6%)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 신고금액을 보면, 전체 신고

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8조3000억원(79.1%), 주식 계좌 7조8000억원(12.8%),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는 5조원(8.1%)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분포는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순이었다.

법인은 인원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홍콩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 마카오, 중국, 호주 순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249명에 대해 과태료 711억원을 부과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2013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12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외부기관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하거나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뉴스

정부, 공공기관 대상 합동채용 방식 도입

정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4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채용 방식을 도입한다.

합동채용 적용 규모는 약 3500명으로, 유사그룹별로 나눠 빠르면 이달 말부터 동일한 날짜에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46개 공공기관을 7개 분야 15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동일한 날짜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 방식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수험생들의 중복합격으로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합동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직종과 결사율이 높아 골머리를 앓던 일부 공공기관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4개 정 책응용과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항만 등 합한 4사가 합동채용을 진행했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이 추가로 합류한다.

하반기부터 합동채용을 실시할 7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11개), 에너지(11개), 정책금융(10개), 보건의료(4개), 농림(3개), 환경(3개), 문화예술

(4개) 등이다.

7개 분야는 다시 세부 그룹으로 나뉜다. SOC 분야의 경우 공학, 철도, 도로, 항만 등 4개 그룹으로 세분화돼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른다. 에너지 분야 역시 전기, 발전 등 4개 그룹으로 나뉘고 정책금융과 보건의료도 각각 2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정부는 올해가 합동채용 확대 시행 첫해임을 감안, 응시기회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해 그룹별로 시험일자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있는 공공기관 중 합동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230여개 기관들은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합동채용 분야별 참여 기관을 살펴보면, SOC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이다.

/뉴스

게임빌 '별이 되어라', 사전 예약 프로모션 시작

게임빌(대표 송병준·063080)은 대표 히트작 '별이 되어라!'의 초대형 업데이트를 앞두고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별이 되어라!'는 오는 21일 'SECONDPACT' 철태랑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초월 상위 등급인 '패왕 강림 시스템'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며 패왕 등급 신규 영웅 '철태랑'도 공개한다.

'철태랑'은 은하특무부 소속의 전자

들로 패왕 등급 동료만이 가지는 특별한 '패기'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보여줄 예정이다. 더불어 '시즌5의 세 번째 모험 지역'과 '신규 던전 시스템', '선술집 전투 시스템' 등 대대적으로 신규 콘텐츠를 강화한다.

앞서 '별이 되어라!'는 업데이트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해 역대급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뉴스

LG유플러스, 'LG V30' 체험존 사전예약 진행

LG유플러스는 전국 700여개 매장에 LG V30 체험존을 운영하고,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V30 체험존에서는 6인치 '올레드 풀비전' 대화면으로 생생한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영화 같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네 비디오' 기능을 직접 이용해 볼 수 있다. 또한 '하이파이 쿼드 테(HIFI Quad DAC)'를 통해 원음에 가까운 고음질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분실/파손 보험상품 이용료를 최대 18개월 무료로 지원한다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내달 31일까지 V30를 구매하는 고객이 제휴할인카드 LG U+ 라이트플랜 신한카드 Big Plus로 할부 구매·자동이체를 신청하고, '폰 분실/파손 보상 85'(최대 85만원 보상) 상품을 가입하면 월 납부 보험료 4500원을 전액 할인 받는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

